공공문화시설과 지역애착심의 관계
-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ultural Facilities and Local Affection

서 인 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주저자)
이 재 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 공동저자)
정 원 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Inseok Seo / Jaewon Lee / Wonhee Jung

It may be the inhabitants of the area that best know the problem that the area is experiencing. Anyone who trie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egion and want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rea will be a resident of the local affectionate area. Local affection has been treated as an important variable for the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community attachment through the use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For this purpose, the local attachment was measured by volunteering and clubs through operational definition through previous research. Through the theoretical confirmation, the research model was set to two, and the model was selected based on the model fit and the hypothesis results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again that the local affec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first research. Especial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ains the relation between the use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and the local affection that was not covered by previous studies. Second, 'satisfaction of leisure' through public cultural facilities was the leading factor of meaningful local affection. Satisfaction with service through public cultural facilities was found to be a positive product, local affection, through satisfaction of overall leisure life. Through this, the importance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was confirmed again. Third, through the analysis, we can suggest the necessity of expanding public cultural facilities and providing better services for regional development. As the government recently established the national leisure activity plan, it can be expected that the eff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an be expected through expansion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Keywords: cultural facilities, local affection, common Index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hantom variable

I. 문제의 제기

지역주민들의 지역애착심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지역애착심은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박동균·이은석, 2007: 4).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여기서 참여란 주민들의 시민의식 혹은 지역사회애착과 같은 사회적·개인적 가치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권송이·송명규, 2017: 3). 즉,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지역사회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장정순·임원선, 2015: 2).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많은 애착을 가진 주민에게 그 장소는 큰 의미를 가질 것 이며, 이는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향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권송이·송명규, 2017: 7).

지역사회 애착도는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 친밀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헌신하려는 시민활동에 참여를 유도한다(이남미·이근모, 2010: 3)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감은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지역의 문제란, 광범위한 시각에서 정의하면 리더십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중재를 집합적으로 요구하는 광범위하면서도 격렬한 골칫거리 문제로, 이러한 골칫거리 문제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험으로 여기며 다함께 생각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장정순·임원선,2015:7). 지역사회 애착심은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단위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는(이종수, 2018; 김진원·이금룡, 2017)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심의 산출물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애착이란, 인간과 타인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가지려는 성향을 의미하며,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고 애착이 형성된 대상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고 싶고, 근접해 있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Ball & Tasaki, 1992; 배은석 외, 2017: 4에서 재인용). 즉, 지역사회의 애착은 긴밀한 정서적 유대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 그러한 성향을 갖게 해준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과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충족시키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의 예시로, 공공문화시설중 하나인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스포츠 동호인 모임의 장으로서 이용되기도 하며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지역주민 과 구성원 간의 상호교류, 유대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촉'과 '통합'의 장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이남미·이근모, 2010: 3).따라서 지역사회의 애착심의 하나의 산출물로서 동호회활동으로(최성범, 2009; 김종길, 2013; 박동균·이은석, 2007; 안동수, 2008)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애착심의 긍정적인 작용은 정부로 하여금 지역의 애착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게 하였다. 전통적인 공급자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고객중심으로의 행정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고, 서비스의 질은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희태, 2003: 1).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변화시켰다(김선희, 2013: 3). 이에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공여가서비스가 부각되었다. 공공여가시설은 생활권의 개념을 부여한 생활권 여가시설 으로 기능을 기준으로 문화시설·공간시설·체육시설로 설명되며, 범위를 기준으로 체육시설·문화시설·복지시설·교육시설 구분된다(문화관광부, 2006). 공공문화시설을 통한 서비스의 만족을 통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서비스조직이 고객시민 행동을 최대화 시키고 고객 불량행동을 최소화시키면 공공기관과 고객만족도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선행연구 (감기대, 2011; 서창적 외, 2010)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오미영(2008)은 지방자치단체들이지역사회를 위하여 제공하는 문화, 여가 예술 활동 등 여러 여가에 관련된 활동과 이를 통하여 형성된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애착감, 일체감과 같은 우호적인 관계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선희, 2013: 4)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이 여가 생활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향후 지역애착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을 지닌다. 우선, 공공문화시설이 매개요인인 여가생활만족을 거쳐 지역사회애착심에 미치는 간접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공문화시설의 이용과 여가생활 만족, 여가생활만족과 지역애착심 등의 관계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변인 간의 인과관계 확인은 공공문화시설에서 지역애착심으로 이어지는 간접관계에 대한 가설을 구성할 수 있는 틀이 된다. 둘째, 각 변인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경로분석은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1.0을 이용하였다. 경로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AMOS에서 제공하는 적합도(model fit) 지표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인 공공문화시설과 여가활동이 지역사회 미치는 효과에 기초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애착심의 의의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하

여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길 것이다. 지역사회란 용어는 '커뮤니티(community)'의 번역어로써 대부분 사회학적 관점에서 지리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유대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이 지역사회의 3가지의 구성요소를 확대하면 지역적 변인으로 지리적 영역, 사회학적 변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심리적이면서 문화적 변인으로 공동의 유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Dennis E. Poplin, 1984; 장정순·임원선, 2015: 4). 즉, 지역애착심이란 장소 중에도 특정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장소, 혹은 지역사회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이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도시 및 지역학의 관심 대상이 된 이유는 지역에 대한 애정의 정도, 지역발전 방향 및 크기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McCool and Martin, 1994; 이경진, 2013: 19). 지역사회는 삶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친근감을 구현하는 공동체의 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애착감은 삶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며, 지역주민이 해당지역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으로 기능적 측면의 의존성, 감성적 측면의 정체성, 사회적 측면에서의 친분성의 개념을 포괄한다(김선희, 2013: 4)[1].

〈표 1〉 지역애착심의 개념

학자	지역애착심
Stokols & Shumaker(1981)	'환경과 인간 사이에서 지각되는 장소에 대한 귀속'
Altman(1992)	'사람이 환경에 대해 갖는 생각(thought),신념(belief),지식(knowledge) 같은 인지적인 요소가 행동(behavior)과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을 강조(고동완·김현정).
Hidalgo & Hemandez(2001)	인간과 특정 장소간의 긍 정적인 정서적 유대 또는 연계
Gross & Brown(2008)	Backlund와 Williams(2003)의 연구결과를 이어 지역애착심을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으로 나누어 장소의존성은 장소에 대한 기능적 애착심이며, 장소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상징적이고, 정서적인 애착심임

출처: 장정순·임원선(2015: 4)재인용

Altman(1992)의 지역애착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장소 애착 이론'은 개인이 가진 장소에 대한 애착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진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있다(이수범, 2013: 12). 더불어 기존의 지역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을 통해 사람과 장소 간의 결속을 다질 수도 있음을 강조

1) 의존성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대한 생활의 편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체성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매우 특별한 개념"이며, 사회적 친분성은 "자신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박동균·이은석, 2007).

한다(김동근, 2008: 9). 이러한 장소에 대한 애착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장소가 가진 환경이나 특정한 배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이고 감정적 관련성을 의미하며, 지역애착의 개념은 지역주민의 감정적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배은석 외, 2017: 5). 이러한 장소에 대한 애착은 심리적 차원으론 장소의 환경과 특정한 배경의 개인의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관련성을 의미하며, 지역애착의 개념은 지역주민의 감정적인 속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배은석 외, 2017: 5).

2.공공문화시설과 여가만족도 그리고 지역애착심

공공여가시설은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공공단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문화관광부, 2007). 공공여가시설은 국민체육센터·청소년수련관·생활체육공원 등 체육분야, 문화의집·문예회관·지방문화원·도서관·미술관 등 문화분야, 사회복지관·주민자치센터 등 복지분야, 평생학습관 등 교육분야의 시설로 구성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윤희정 외, 2009: 3). 최근 근무유연제 및 근무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흐름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강요한다. 즉 근무시간 단축은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정부는 국민여가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워라벨'(work and balance)과 같은 신조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인식적 사고를 반영한다. 과거와 달리 자신만의 시간이 생겨 직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줄만한 공공문화시설 정책이 중요해 진 것이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욕구충족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현대인들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문화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박동균·이은석, 2007: 3). 또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곧 총체적 국가의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시민이 아닌 고객으로 인식하여 평가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선희, 2013: 3).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가시설 중 공공여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시켰다. 공공문화시설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과,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호(2010)은 공공문화기반시설 중 하나인 도서관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화향유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에서는 문화향유의 정도에 대한 도서관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 빈도를 이용하였으며, 도서관 외에 문화재 및 박물관, 예술행사 관람, 체육시설, 여가활용, 대중문화향유 등을 문화향유에 대한 상대적 측정지표로 적용하였다.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서 하드웨어적 기반시설의 증설 외에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추가적인

고려가 주민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강호진(2004)는 공공문화시설 중 문화복지시설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을 친절도와 편리성, 접근성, 비용능률성, 시설유형성, 능력·공감성 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문화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며, 적절한 이용요금, 지방자치의 참여 증진이 필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여가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여가활동에서 인지하는 여가생활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강현욱 외, 2012: 3). 여가만족은 여가충족의 정도로 정의하는 방식과 여가경험과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수준에서 정의 할 수 있는데, 전자는 동기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후자는 인지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전자의 관점에서 여가만족이란 여가행동의 수행의 최종결과로 여겨지며 욕구충족의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경험만족이 곧 여가만족이라 할 수 있다(허중욱, 2014: 3). 만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의 기대와 그러한 기대의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정광현·원철식, 2002: 4). 이러한 유용한 여가활동은 활동에 참여한 후 사후태도로서 여가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허중욱, 2014: 3). 공공문화시설이용과 여가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김종길·전윤수(2015)는 지역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참여동기와 고객충성 및 지역애착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가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강현욱 외(2012)는 공공체육시설의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만족,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참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여가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신두섭·박승규(2012)는 늘어나는 공공문화시설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문화시설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쾌적성, 친절도, 질적 및 활용 측면, 편리성, 수준 및 중요도 순으로 구분한 뒤 순서화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이러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효과는 지역애착감이라는 긍정적인 산출물로 나타날 수 있다. 김선희(2013)은 공공여가시설의 서비스 성과가 지역주민의 지역애착과 향후 여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직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합시설(문화공연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 등)로 운영되는 2개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여가시설의 서비스 성과와 지역애착의 관계가 유의했으며, 공공여가시설의 서비스성과의 기관성과가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정체성·의존성·친분성이 높아지며, 또한 사회성과가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정체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남미·이근호(2010)는 공공체육시설을 통한 이용만족이 지역 애호도와 공동체 의식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통한 만족은 지역애호도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지역애호도는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최태호(2000)은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은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의 장으로 지역사회 복지구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개발에 중요한 요인임

을 밝히고 있다. 즉,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을 통한 만족은 삶의 질의 향상을 야기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애착심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정순·임원선(2015)는 지역애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지역애착도와 지역만족도와 지역문제의 심각성 인식의 정도 변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지역만족도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만족도로 측정되며, 여가시설 또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측정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통한 여가의 만족의 지역애착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검토

지역애착심은 지역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매개체로 그 효과를 규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지역애착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를 살펴본 뒤, 지역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손지현 외(2015)는 지역사회의 거주민이 인식한 지역사회 문제가 지역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산지역 주민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구도심과 신도심을 나누어 사회문제의 인식의 하위요인인 시설·환경 문제와 지역구성원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지역사회애착의 차원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차이, 지역사회애착 영향요인의 경우 구도심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의 보이지 않는 지역구성원 문제인식, 신도심의 경우에는 시설·환경에 관한 문제인식으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홍나은 외(2015)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지역자산, 지역애착의 영향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인적·공동체적 자산이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을 제언한다. 서철현(2017)는 지역축제의 이미지가 지역애착도와 개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한 결과 지역축제의 이미지의 하위요소인 가치성이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애착심의 효과,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로 권송이·송명규(2017)는 지역사회 애착과 시민의식이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애착과 시민의식은 친환경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친환경행동의식에 지역애착은 부의 영향을 준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노윤구(2006)는 축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애착심이 주민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 연구에서 축제에 대한 지역애착심이 지역사회 애착심 요인 중 정체성을 제외한 의존성과 사회적 친분성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배은석 외(2017)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소득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애착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으로 분석하여 일반계층에서 지역사회 애

착, 주거형태, 경제적 여건이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계층에서는 지역사회 애착이 유일한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지훈·김윤정(2012)는 지역애착심이 집단효능감과 관광개발 인식에 미치는 연구 결과 지역애착심은 집단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관광개발의 경우 지역애착심의 한 종류인 친분적 애착심만이 영향을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였다.

〈표 2〉 지역애착심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가설검증 결과	연구방법
손지현 외 (2015)	지역 애착심	지역사회문제	-	인적·공동체적 자산이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	ANOVA, 다중회귀분석 등
홍나은 외 (2015)	지역 애착심	지역자산(인적·공동체적 자산)	-	인적·공동체적 자산과 브랜드 epuity가 지역애착심에 영향을 미침	다중회귀분석, 위계적회귀분석
서철현 (2017)	지역 애착도	지역축제의 이미지	-	지역 애착도와 축제의 개최성과 간 관계에 있어 유의적인 정(+)의 인과관계가 성립함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요인분석
권송이·송명규(2017)	친환경 행동	지역사회 애착 시민의식	지역적 환경의식	지역사회 애착과 시민의식은 친환경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분석
노윤구 (2006)	축제	지역사회 애착심	-	지역주민의 태도와 지역관광개발 지지에 지역애착심의 요소가 정(+)의 영향을 미침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배은석 외 (2017)	지역사회 만족	지역사회 애착심	-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애착의 통계적 차이가 관측됨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이지훈·김윤정(2012)	집단효능감과 관광개발 인식	지역사회 애착심	집단 효능감	지역애착심은 집단효능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며, 관광개발인식의 경우 친분적 애착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	실증분석

요컨대,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애착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써의 가설과 효과를 검증해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공공문화시설과 같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적 활동이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나아가 지역애착심이 개인의 만족을 매개로 간접효과를 지닌다는 가설을 함께 다룬다. 지역애착심은 문화적 요인으로써 선결된 변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역애착심은 다양한 정부 정책 또는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속적 변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제도가 변화하고 관련 구성원이 이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 규범적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다양한 문화가

변화할 수도 있다(서인석 외, 2011: 399-401). 본 연구도 관련 제도적 속성이 개인의 만족과 지역적응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지역애착심 등 지역공동체 요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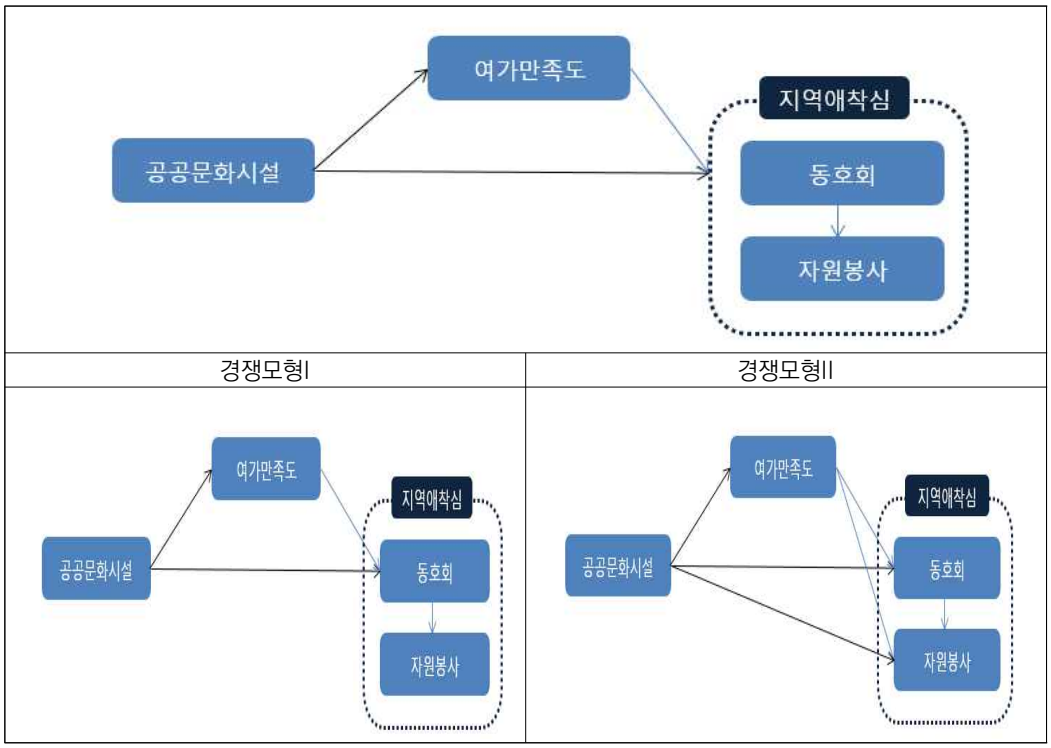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지역애착심은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과 여가만족도와 지역애착심 간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문화시설을 기본적인 맥락요소로 설정하고,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이를 통하여 지역애착심의 하위요소인 동호회 활동과 자원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를 검토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이 지역애착심을 높일 것이다
H2: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은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지역애착심을 높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3가지의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2가지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여가만족도와 지역애착심의 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때 지역애착심의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2가지 변수를 고려해 경쟁가설I과 경쟁가설II를 제안하였다. 지역애착심의 하위요소인 동호회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공공문화시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비교적 동호회활동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호회를 거쳐 자원봉사로 이어지는지는 관계와 다른 변인이 동호회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정한 것이다. 검증의 방식은 두 가지 모형을 각각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한 후 더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는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및 자료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우선, 종속변인으로서 지역애착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했던바와 같이 지역애착심이란,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뤄지며,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장소, 혹은 지역사회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이라 정의해 볼 수 있으며, 협소하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바람과 자신이 애정하는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와, 상호작용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하여 지역애착심을 '자원봉사'와 '동호회'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사용하고자 하였다. '자원봉사'와 '동호회'가 지역애착심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으나 자원봉사와 동호회활동이 지역애착심을 잘 표현하는 지표라 판단하였다. 이때 자원봉사는 구성원들의 1년 이내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과, 동호회활동은 동호회 참여 여부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공공문화시설은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공단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며,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공공문화시설은 문화분야 (문화의집·문예회관·지방문화원·도

서관·미술관 등), 체육분야 (국민체육센터·청소년수련관·생활체육공원 등), 복지분야(사회복지관·주민자치센터), 교육분야(평생학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문화시설은 생활권 내의 공공문화여가시설의 이용여부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여가만족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여가활동에서 인지하는 여가생활의 만족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가만족은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표 3〉 개념 및 측정도구

구분	개념		변수명	측정도구	변수처리	측정
독립변수	공공문화시설		Q19	생활권 내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 여부	더미	무=0 유=1
매개변수	여가만족		Q30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	더미	
인구학적 통제	성별		Q35	응답자 성별	더미	남성=0 여성=1
	연령		Q36	응답자 연령	비율	현재 나이
	혼인유뮤		Q37	혼인상태	더미	혼인 유무
	소득		Q44A1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비율	가산 자료
종속변수	지역 애착심	동호회	Q22	동호회 참여 여부	더미	무=0 유=1
		자원봉사	Q23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더미	

2) 분석방법: 경로분석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간주되는 '공공문화시설', 매개변수로 간주되는 '여가만족도' 종속변수로 간주되는 지역애착심인 '자원봉사'와 '동호회' 의 경로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애착심과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AMOS 21.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이란 변수들 간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경로모형을 정립하기 위해선 첫째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공변량이 존재해야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둘째로 인과적 흐름의 순서(time over)가 전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비의사적 관계(nonspuriousness relationship)가 되어야 한다는 3가지의 기본가정(casual ssumption)이 전제되어야 한다(변세일, 2008: 5).

한편, 자원봉사활동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다. amos통계 패키지의 통제변수 설정방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배병렬, 2014: 475-479), 매개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팬텀변수 설정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배병렬, 2014: 450-457).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과 소득은 비율변수로 해석하고, 혼인유무와 성별은 더미변수로 해석하였다. 팬텀변수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 개별 매개변수에 대한 가

상의 변수로 여겨 이를 추정하면 특정간접효과를 도출할 수 있고, 부트랩핑(Bootstraping)을 이용 통계적 유의성 또한 도출가능하다(서인석, 2016: 16). 특히, 팬텀변수의 경우 가상의 변수이기에 모형적합도와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배병렬, 2014: 116 & 440).

3) 조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위의 모형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 하였다.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데이터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었다(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2016: 4). 해당 자료 중 변수가 미관측 자료를 제외하고 활용된 데이터는 5,89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4〉 인구학적 특성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816	47.79
	여성	3,077	52.21
연령	10대	427	7.2
	20대	881	14.9
	30대	954	16.2
	40대	1,104	18.7
	50대	1,072	18.2
	60대	1,455	24.7
소득	100만원 미만	2,596	44.1
	100~200만원	1,077	18.3
	200~300만원	955	16.2
	300~400만원	805	13.7
	400~500만원	238	4.0
	500~600만원	140	2.4
	600만원이상	82	1.4
혼인유무	미혼	1,554	26.37
	기혼	3,845	65.25
	사별/이혼	494	8.38

자료: 2016 국민여가 실태조사

Ⅳ. 경로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연구모형1의 독립변수로 간주되는 '공공문화시설', 매개변수로 간주되는 '여가만족도' 독립변수로 간주되는 지역애착심인 '자원봉사'와 '동호회' 의 경로관계와 연구모형2의 독립변수인 '공공문화시설', 매개변수 '여가만족도' 독립변수로 간주되는 지역애착심인 '자원봉사'와 '동호회' 의 경로관계와 독립변수 '공공문화시설'과 '동호회','자원봉사'의 직접적인 관계의 경로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인들 간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모형적합도를 통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여 각 요인들 간의 경로관계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표 5〉기술통계량

변수명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1	0		
동호회참여여부	5893	921	4,972	0.156	0.365
자원봉사참여여부	5893	688	5,205	0.116	0.314
전반적 여가생활만족도	5893	4,848	1,045	0.822	1.153
공공문화시설이용여부	5893	2,354	3,539	0.399	0.496

2. 경로모형의 적합성

산출된 경로모형의 적합도(overall fit of model)를 평가하는데 어떠한 적합도 지수가 가장 좋은 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배병렬, 2006) 일반적으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3가지유형의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즉,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index)를 사용하며, 기초모형(독립모형) 대비 연구자가 구축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를, 모형의 간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index)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3가지 지수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산출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구체적인 지표로는 $\chi 2$ 검증,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GFI Adjusted of Degrees of Freedom),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IFI(Incremental Fit Index)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을 참조하여야하는 이유는 가운데 하나는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해주는 $\chi 2$ 검증에서 귀무가설의 엄격성과 표본크

기에 따른 민감성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chi 2$ 검증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적합도 지수(fit index)들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김계수, 2007; 김대업, 2008; 이학식 외, 2007). 즉, $\chi 2$검증에서 p값이 0.05 미만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변량의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거나 표본추출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모형의 설정오차로 인해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공분산행렬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본크기가 크다면, 데이터 개수에 비례하여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chi 2$ 값이 크게 산출되어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chi 2$ 값이 크게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구축한 경로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좋은 모형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이기종, 2003). 다만, 여전히 연구자들 간에 어떤 모형적합도가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심준섭(2015: 462)은 SEM을 개발하고 교정하기 위한 주요 학자를 중심으로 공통적합지수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다. 3-5개의 공통된 지표는 꼭 사용하기를 권장하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로 RMSEA, NNFI(=TLI), CFI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Bollen & Long, 1993; Mueller, 1996; Fan et al., 1999; Garver & Mentzer, 1999; Kline, 2005; Hair et al., 2010)와 SRMR(Hu & Bentler, 1998)를 포함시켜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는 RMSEA의 사용을 강조하거나(MacCallum & Austin, 2000)[2], RMSEA, CFI(또는 TLI), SRMR을 강조하기도 하였다(Kline, 2005; Hair et al., 2010)

〈표 6〉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판정 기준치

구분	적합도지수	경쟁모형I	경쟁모형II	적합도기준	판정
모델 전반적 적합도	X^2 (유의확률)	0.000	0.000	계산된 X^2값과 임계치 비교	만족
	RMR	0.002	0.000	0.08 이하 우수	동일
	SRMR (=Standardized RMR)	0.0125	0.000	0.08 이하 우수	만족
	RMSEA	0.053	0.200	0.1 이하 우수	모형I 만족
모형 설명력	GFI(=R^2)	0.995	1.000	0.9이상 우수	만족
	AGFI (=AdjustedR^2)	0.973	산출되지 않음	0.9이상 우수	모형I 만족
독립모형 대 연구모형	NFI	0.938	1.000	0.9이상 우수	만족
	NNFI(=IFI)	0.995	1.000	0.9이상 우수	만족
	CFI	0.995	1.000	0.9이상 우수	만족

2) 그 이유로, RMSEA는 (a) 잘못된 모형설정에 민감하며, (b) 0.05 미만 기준을 적용해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c) 신뢰구간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MacCallum & Austi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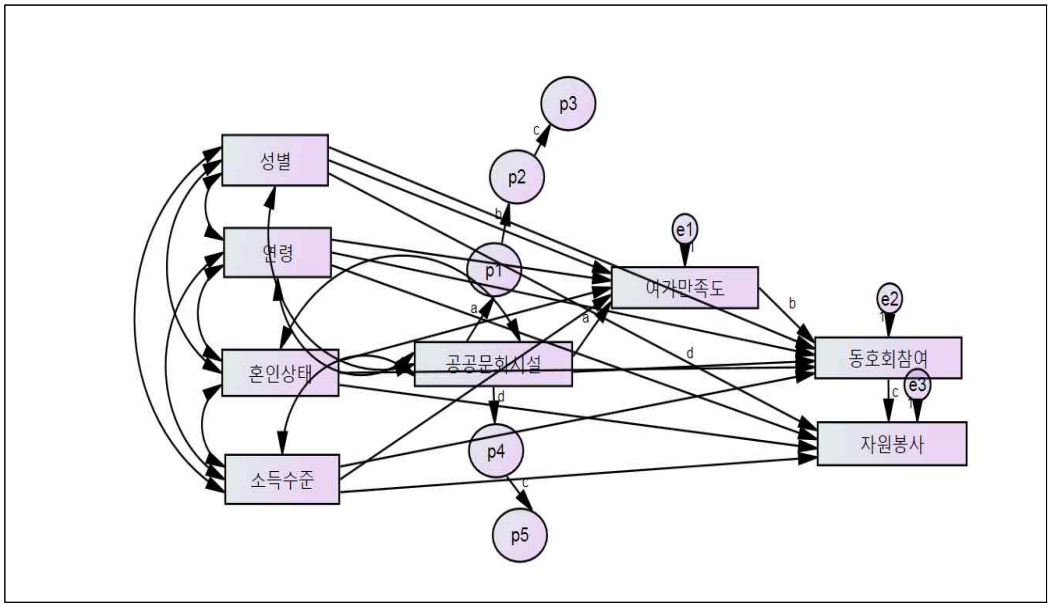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적합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최근 강조하고 있는 지표로 SRMR, RMSEA, NNFI(=TLI), CFI는 포함시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표 6〉 참조). 먼저 다른 모형과 비교 없이 데이터의 분산, 공분산 행렬과 추정된 연구모형의 공산, 공분산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적 합지수로 세 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산출된 경로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검증하는 $\chi 2$ 값은 35.759으로 높지 않게 산출되었으나, p값은 0.00으로 통계적 유의적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이희연·박정호, 2009). 또한, $\chi 2$ 검정만으로는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모형1의 다른 적합도지수인 (RMR)은 0.004, (RMSEA)은 0.054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의 R2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지표로서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경로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GFI)는 0.997로서 기준치(0.9)를 만족하였다. 다음으로, 기본 독립모형에서 연구모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도 세 가지 지표를 참조하였다. 표준적합지수(NFI)는 0.938, 증분적합지수(NNFI=IFI)는 0.941, 비교적합지수(CFI)도 0.941으로 모두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되는 기준치(0.9)를 모두 만족하는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기본 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이희연·박정호, 2009).

반면 연구모형 2번은 (RMSEA)값이 0.200으로 도출되었으며, RMSEA의 판정 기준인 0.1이하의 값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AGFI(=AdjustedR^2)값이 산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모형 2번은 모형 적합도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쟁모형I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논의

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측정변수 간, 경로계수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동호회→자원봉사(0.249)]의 경로로 동호회가 자원봉사에 상당한 수준의 정(+)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호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문화시설(0.134), 여가만족(0.037)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여가생활만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0.122)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 경로분석결과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공공문화시설의 만족스러운 이용은 여가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여가 생활의 만족과 욕구 충족을 통하여 지역애착의 한 종류인 동호회활동이라는 산출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호회활동은 공동체 활동의 한 종류로, 동호회라는 조직에 귀속되는 과정을 거친다. 귀속의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공동체 중 하나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고, 지역애착의 하나의 결과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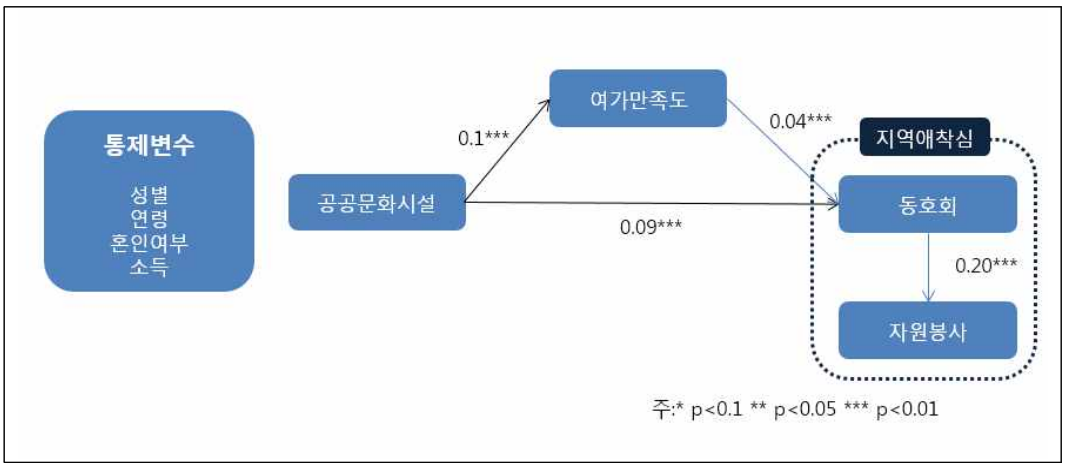
〈표 7〉 측정변수간 경로계수 결과

종속	방향	독립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여가만족	←	공공문화시설	0.122	0.095	0.01	9.393	***
여가만족	←	연령	0.063	0.001	0	3.469	***
여가만족	←	성별	-0.016	-0.012	0.011	-1.087	0.277
여가만족	←	혼인상태	-0.009	-0.006	0.012	-0.487	0.627
여가만족	←	소득수준	-0.024	-0.005	0.003	-1.65	*(0.099)
동호회	←	공공문화시설	0.134	0.099	0.01	10.373	***
동호회	←	여가만족	0.037	0.036	0.012	2.901	**(0.004)
동호회	←	연령	0.012	0	0	0.663	0.507
동호회	←	성별	-0.047	-0.034	0.011	-3.193	**(0.001)
동호회	←	혼인상태	0.013	0.008	0.011	0.714	0.475
동호회	←	소득수준	0.115	0.022	0.003	7.9	***

자원봉사	←	동호회	0.249	0.22	0.011	19.643	***
자원봉사	←	연령	-0.063	-0.001	0	-3.52	***
자원봉사	←	성별	0.016	0.01	0.009	1.1	0.272
자원봉사	←	혼인상태	-0.029	-0.015	0.01	-1.588	0.112
자원봉사	←	소득수준	-0.073	-0.013	0.002	-5.067	***

주*: p〈0.1, **: p〈0.05, ***:p〈0.001

다음으로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가만족은 나이가 들수록 6.3% 높아진다는 수준을 보였다. 이는 비교적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쉽게 높아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반면 자원봉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6.3%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은 층에서 보단, 연령이 낮은 층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동호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동호회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7%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동호회 참여가 활발할 것이라는 생각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에 반해,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만족이 2.4%, 자원봉사가 7.3% 낮아진 수준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비교적 금전적인 제약이 자유로워 여가생활 만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하였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표 8〉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방향성	추정치	신뢰구간	P값
공공문화시설 → 여가만족 → 동호회 → 자원봉사	(+)	0.003	0.017~0.028	**
공공문화시설 → 동호회 → 자원봉사	(+)	0.001	0.000~0.001	***

주*: p〈0.1, **: p〈0.05, ***:p〈0.001

〈표 8〉은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이다. 가설검증 결과이다. 공공문화시설이용과 지역애착에 미치는 효과 중 지역애착심의 최종적인 자원봉사로 연결될 때 그 매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공문화시설→여가만족→지역애착(자원봉사, 동호회)]경로(0.003)와 [공공문화시설→지역애착(자원봉사, 동호회)]의 경로(0.001) 모두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성을 모두 충족시켰다.

〈표 9〉 가설검증 결과

구분	독립변수	방향			종속변수	기각여부
H1	공공문화시설이용	+			지역애착심	기각되지 않음
구분	독립변수	방향	매개변수	방향	종속변수	기각여부
H2	공공문화시설이용	+	여가만족	+	지역애착심	기각되지 않음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공공문화시설 이용이 지역애착심을 높인다는 H1은 기각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문화시설 이용이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지역애착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H2 역시 기각되지 않았다. 두 가지 가설검증 결과는 공공문화시설과 지역애착의 관련성을 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일 것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의 애착심을 가진 지역의 주민일 것이다. 지역애착심은 지역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의 애착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을 통한 여가만족과 지역애착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애착을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자원봉사와 동호회 두 가지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공공문화시설과 여가만족, 그리고 지역애착심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 확인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2가지로 설정하여 자원봉사와 동호회 각각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두 번째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모형적합도 확인결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 연구모형 1번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분석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 하였으며, 경로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산출된 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혼인상태, 소득수준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고 남성의 경우 동호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예상과는 달리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낮으며,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간접경로의 분석을 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정(+)방향으로 유의한 결과(0.003, 0.001)를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과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애착심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공공문화시설의 이용과 지역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공공문화시설 역시, 최근의 사회 경향을 통해 부각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여가를 통한 정책의 중요성 역시 알 수 있었다. 둘째로, 경로분석 결과 공공문화시설을 통한 '여가의 만족'이 의미 있는 지역애착심의 선행요인이었다는 점이다. 공공문화시설를 통한 서비스의 만족은, 전반적인 여가생활의 만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산출물인 지역애착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공공문화시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문화시설의 확충과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국민여가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만큼, 공공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현욱·민병학·안동수. (2012). 공공체육시설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한국웰니스학회지」, 7(1): 1-12.

강호진. (2004).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8(2),23-40

권송이·송명규. (2017). 지역사회애착과 시민의식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시를 사례로.「환경정책」, 25(3): 195-219.

김동근. (2008).「주거 지역의 장소 애착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김종길. (2013).「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참여 동기와여가만족도·고객충성도·지역애착도의 관계

」,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김종길·전윤수. (2015). 공공체육시설 이용 참여동기와 고객충성 및 지역애착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2): 35-45.

노윤구. (2006).「축제에 대한 지역사회 애착도가 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화관광부. (2007).「2006 체육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박동균·이은석. (2007).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스포츠 소비행동과 지역사회 애착도의 관계.「도시행정학보」, 20(2): 57-74.

배은석·손지현·박해긍·송영지. (2017). 지역사회애착이 지역사회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 차이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24(1): 137-156.

신두섭·박승규. (2012).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 결정요인 분석.「문화경제연구」, 15(3): 139-159.

안동수. (2008).「공공체육시설 참여요인이 지역사회애착과 여가지속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경진. (2013).「지역주민의 생태축제 충성도와 그 영향요인 간의 인과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용인.

이남미·이근모. (2010). 공공체육시설 이용만족과 지역사회 애호도 및 공동체의식의 영향관계 분석,「한국체육학회지」, 49(4): 131-142.

이수범. (2013). 인천시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인천의 지역성과 애착에 미치는 영향.「인천학연구」, 18: 133-172.

이유찬. (1997). 스포츠 활동이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의 개인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한국체육학회지」, 36(2): 2086-2097.

이재호·송건섭·김도희. (2010). 지방자지단체의 상대적 문화향유 측정과 문화정책추진 방향연구.「지방정부연구」, 14(2): 105-124.

이희태. (2003).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분석.「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52-268.

장정순·임원선. (2015). 지역사회 애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한국정책연구」, 15(2): 101-125.

정광현·원철식. (2002). 라이프스타일, 여가인식과 만족의 관계.「관광연구」, 17(2): 23-41.

최성범. (2009).「한국체육과학회지」, 18(3): 335-345.

최태호. (2000).「스포츠시설 유형별 기능과 지역사회개발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허중욱. (2014). 여가시설 이용자의 여가만족과 여가제약.「관광연구저널」, 28(12): 203-213.

Altman, I. (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NY: Plenum Press.

Gross, M, & Brown, G. (2008). An empirical structural model of tourists and places: progressing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into tourism. *Tourism Management,* 29(6): 1141-1151.

Hidalgo, MC, & Herna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McCool, S. F. & S. R. Martin.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pp.29-34.

Stokols, D., & Shumaker, S. A. (1981).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people in place. *Hillsdale*, NJ:Erlbaum: 481-488.

접수일(2019년 03월 04일)
수정일(2019년 04월 12일)
게재확정일(2019년 04월 18일)

〈국문초록〉

공공문화시설과 지역애착심의 관계: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일 것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의 애착심을 가진 지역의 주민일 것이다. 지역애착심은 지역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의 애착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을 통한 여가만족과 지역애착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애착을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자원봉사와 동호회 두 가지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론적 확인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2가지로 설정한 후 모형적합도에 기초하여 모형을 선택하고 가설결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애착심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공공문화시설의 이용과 지역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공공문화시설을 통한 '여가의 만족'이 의미 있는 지역애착심의 선행요인이었다는 점이다. 공공문화시설를 통한 서비스의 만족은, 전반적인 여가생활의 만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산출물인 지역애착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공공문화시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문화시설의 확충과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국민여가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만큼, 공공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제어: 공공문화시설, 지역애착심,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공통지수, 팬텀변수